

맥 못추는大作들...본전도 못 건질라

3편 모두 누적관객 200만명 미만
100억대 대작들 손익분기점 걱정
연말 성수기 흥행 불패 기록 깨져
한국영화 과다·출혈경쟁 우려도



연말에 개봉한 송강호의 '마약왕', 강형철 감독의 '스윙키즈', 하정우의 'PMC:더 벵커'(왼쪽부터 순서대로)가 부진한 성적에 그치고 있다. 사진제공 | 쇼박스·CJ엔터테인먼트·NEW

지난해 연말 개봉한 한국영화 3편 모두 체면이 서지 않는 성적표를 받아들 위기다. 손익분기점 돌파가 요원한 가운데 스타배우와 감독의 도전이 관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흥행을 좌우하는 키 맨을 지칭하는 '티켓파워'라는 단어가 무색한 결과이자, 극장 성수기를 노린 한국영화 대작은 대부분 기본 이상의 흥행 성과를 내지 못한 불패 기록마저 깨졌다.

지난해 12월 나란히 개봉하면서 한국영화 빅3 분위기를 형성한 '마약왕' '스윙키즈' 'PMC:더 벵커'가 개봉 2~3주째를 지나는 6일 현재 각각 190만, 140만, 160만 관객 동원에 그치고 있다. 저마다 140억원에서 150억원대의 총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의 성적표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한 기록이다. 적어도 400만 명을 넘겨야 제작비 회수가 가능하지만

지금 분위기에선 가망이 낮다. 손익분기점 넘겨야 할 상황이다. 해외 판매 및 IPTV 공개가 남아있다고 해도 제작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송강호와 하정우 그리고 강형철 감독까지 더해 그동안 대중으로부터 굳건한 신뢰를 얻은 이들의 도전이 관객과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고민을 남기는 대목이다. 내놓은 영화마다 성공으로 이끈 이들은 그간 인정받은 저마다의 매력과 장기를 털어내고, 새로운 캐릭터와 이야기 그리고 메시지를 시도했지만 관객과 소통

에는 실패했다. 기획 방향과 관객 정서를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동반 부진 탓에 '흥행 뒷발'으로 통한 12월의 한국영화 관객수도 2011년 이후 7년만에 외화에 밀렸다. 지난해 1012만 6130명(영화진흥위원회)을 기록, 2017년 같은 달(1866만6435명)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기까지 했다.

여름과 더불어 극장가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연말에 출격한 한국영화들이 이처럼 처참한 기록에 머물기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 제작비 100억원대 한국영화 4편에 동시기 개봉해 '안시성'만 가

까스로 손익분기점을 넘기면서 제기된 과다·출혈 경쟁 논란이 연말연초에 고스란히 재현됐다. 수요증가는 없는 상태에서 공급 과잉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 있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한국영화 제작비,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축하고 영화계에 뛰어든 신생 투자배급사의 등장, 이에 따라 가속화될 대작의 증가 및 상영·흥행 경쟁을 고려하면 올해 영화계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이혜리 기자 gofi1024@donga.com

#해시태그 컷



'쇼트컷' 솔라 반전 매력

그를 마마무의 솔라가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자른 모습을 공개했다. "머리 자른 거 아니에요, 잘린 거예요"라는 설명을 곁들이면서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드러냈다. '긴 생머리' 스타일을 고수해왔던 그의 파격 변신이 놀랍다. 쇼트컷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해 걸크러시의 매력을 더욱 과시하고 있다. 솔라의 모습에 팬들은 "여전히 예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스포츠동아 #마마무 #솔라 #쇼트컷으로 변신

'新 음원 강자' 청하

신곡 '벌써 12시' 차트 석권

가수 청하가 새로운 '음원 강자'로 우뚝 서면서 여성 솔로가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청하가 '벌써 12시'를 통해 각종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연말부터 열린 가요



청하

시상식에서도 트로피를 품에 안는 등 '솔로 파워'를 입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활발히 활동하며 두각을 나타낸 덕분에 가요계를 넘어 광고계까지 위상을 떨치는 분위기다.

청하는 최근 내놓은 '벌써 12시'로 현재 음원차트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방송사의 음악순위 프로그램에서도 상승세를 타며 데뷔 이후 꿈이 목표였던 1위에도 이르면 다음주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팬덤도 마찬가지다. 아이돌 가수 일색인 가요계에서 춤과 가창력을 지닌 '실력형 퍼포먼스 여가수'로 매력을 어필하면서 팬덤도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공식 팬클럽 '벌하랑'의 회원수는 물론 각종 SNS에서는 청하에 대한 게시물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청하에 대한 관심이 확연히 달라진 분야는 단연 광고계다. 인기의 바로미터인 광고계에서 그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6일 광고계에 따르면 최근 청하는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를 비롯해 주류, 의료, 화장품, 게임 등 각종 광고모델로 나서고 있다. 추가 광고모델 제의도 잇따른다.

해외 진출도 모색 중이다. 기존과 달라진 입지 등으로 해외 팬덤까지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미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나온 그는 영어 실력이 뛰어나 해외 진출에 대한 기반을 이미 마련했다. 소속사 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제의가 있다"며 "국내 인기를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annjyo@donga.com

편집 | 김형주·고형일 기자



2019년도 트와이스! 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제33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트와이스가 음원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2018년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그 인기를 확장한 성과를 인정받은 트와이스는 올해도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사진은 이날 시상식 포토월에서 선 모습. 한 겨울 추위를 날리는 환한 미소로 팬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kwangshin00@donga.com

이종수, 미국서 또 사기 의혹

카지노 근무 중 돈 빌리고 안 갚아
피해자 속출...현지 매체서도 보도

본지
단독

미국에 체류 중인 연기자 이종수가 현지에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국내서 잠적할 당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던 그가 미국에서도 또 다시 논란에 휘말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LA에서 이종수를 가까이 지켜보고 있는 한 관계자는 6일 "이종수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카지노에 근무하면서 지난해 8월경부터 한인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며 "최근에도 약 16만달러(한화 1억7000만원)를 빌리고 갚지 않아 피해자들의 상황이 난처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종수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 피해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종수의 사기 혐의는 LA 현지 뉴스를



이종수

통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도됐다. 한인 소식을 주로 전하는 방송매체 USKN는 4일(한국시간) 이종수의 실명을 공개하며 한인들의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종수는 미국에 정착하기 직전 국내서도 사기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 지난해 3월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대가로 돈을 받고 당일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이종수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가 사건 중재에 나서, 고소인과 이종수의 가족이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후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후 국내서 행방이 묘연했던 이종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디너 지역의 한 카지노에서 프로모션 팀의 호스트로 근무 중인 사실이 밝혀졌다. 국내서 벌인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 미국에 정착한 그를 향한 비난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또 다시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이별 인사도 없이...하용수 '별이 지다'

(배우 겸 패션디자이너)

"가을얇이" SNS 글이 마지막 대화
암 투병 끝에 별세 '안타까운 이별'

"온통 잿빛이었던 오늘, 도통 우울증이 사라질 줄 모른다. 지독한 가을얇이인 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웃음을 안 잃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배우 겸 패션디자이너 하용수가 지난해 11월 초 자신의 SNS에 남긴 말이다. 치아 치료를 받는 중이었던 그는 그 탓이었는지 우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던 듯하다. 하지만 이는 그가 생전 세상 사람들과 마지막 나는 대화가 되어 버렸다.

하용수가 5일 새벽 세상을 이별했다. 향년 69세. 암 투병 중이라는 사실(2018년 12월31일 스포츠동아 단독 보도)이 세상에 알려지지 6일 만이었다.

하용수는 11월 초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직후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의식은 내내 희미했던 것으로 알

려졌다. 급성 담도암 및 간암 판정이 내려졌다. SNS에는 지인들의 안타까움과 건강 회복에 대한 기원이 이어졌다. 하용수는 이후 경기도의 한 요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 한 관계자는 "10월까지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하용수는 1969년 TBC 7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영화 '헬류'를 시작으로 '별들의 고향' '남사당' '게임의 법칙' 등에 출연했다. 올해 1월 '천화'로 23년 만에 복귀하며 열정을 과시했다.

1974년 진태옥 디자이너의 패션쇼를 연출하며 이후 한국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디자이너로 맹활약해왔다. 영화 '겨울나그네' '서울무지개' '불새' 등에서 의상을 담당한 그는 1992년 '사의 찬미'로 대중상 의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당시 이미숙, 최민수, 이정재, 연우선 등 연기자 매니지먼트를 통해 '스타메이커'로 불리며 한 시대를 품었다.

고 하용수의 빈소는 6일 오전 서울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8일 오전이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하용수